

세계사에서의 무기발달과 전술 전략의 변화 IV-(1)



許重權

육군 제3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
육군 중령, 역사학 박사

제2차 포에니 전쟁이 끝난 후 150년 동안 진행된 로마의 변화와 무질서 현상은 군대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병사 개개인의 무능력과 로마인의 시민으로서 및 군사적인 의무 수행이라는 美德의 퇴화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군사 제도는 군의 탁월성을 가져다 준 기본적인 원칙의 바탕 위에 아직 남아 있었다. 그것은 규칙, 군기, 훈련, 융통성 및 궁세 행동의 효율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 등의 요소이다.

무기발달과 전술 전략의 변화

이 기간 중의 가장 중요한 현상은 중국의 漢 제국과 지중해의 로마 제국이라는 두 위대한 군사 강국의 평행적인 발전이었다. 군사 지도술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이전 시기에 비하여 수준이 낮았다.

Caesar만이 알렉산더 대왕이나 한니발과 어깨를 견줄만하였고, 제2차 포에니 전쟁 기간 중에 활동했던 로마의 영웅들인 스키피오 에밀리누스, 술라, 루클루스 등과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 그의 후계자들은 군사 지휘술의 도량 면에서 케사르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도였다.

■ 군사 이론과 전술

이 기간 중에 군사 이론, 전략 및 전술에 있어서

현저한 발달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중요한 개량, 혁신, 변형 등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로마군의 조직에 있어서 그러하였다. 유럽에서는 步兵이 전투의 최고 결정인자로 남아 있었다.

아시아에서는 騎兵이 우위를 점하였다. 마케도니아의 팔랑스와 로마의 레지온이 Cynoscephalae와 Pydna의 두 중요한 전투에서 맞부딪쳤는데, 레지온이 승리하였다.

로마군은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을 정도로 전투시 野戰 築城을 잘 하였는데, 공격 및 방어 본부로 그들의 기지를 초기부터 방호하여 군수 지원을 발달 시켰다.

Chaeronea 전투에서 Sulla가 독창적으로 이룩한 것을 이어받은 로마군은 공세적이고 공격적인 작전 계획들에 야전 축성을 통합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경우들에도 부삽과 도끼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들은 역시 야전 축성기술과 함께 결합하여 야전 포병으로 운용하기 위한 소규모 미사일 엔진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 기 병

기독교 역사의 시대가 시작될 무렵까지 인도를 제외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騎馬 弓手가 戰場을 지배하였다. 북부 인도에서는 기병이 주요 무기였지만, 창과 칼도 중요한 무기들이었다 : 지형 및 기후 요인으로 인하여 대규모 기병 부대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좋은 말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부 및 남부 인도 지역에서는 보병 부대가 기병 부대보다 더 중요시되었다.

남부 인도에서는 대부분의 良馬는 이륜 전차부대에 사용되었다(이륜 전차 부대는 여전히 어느 지역에서나 운용되었는데, 특별히 Pontus의 Mithridates 가 잘 사용하였는데, 이륜 전차의 중요성은 점차 감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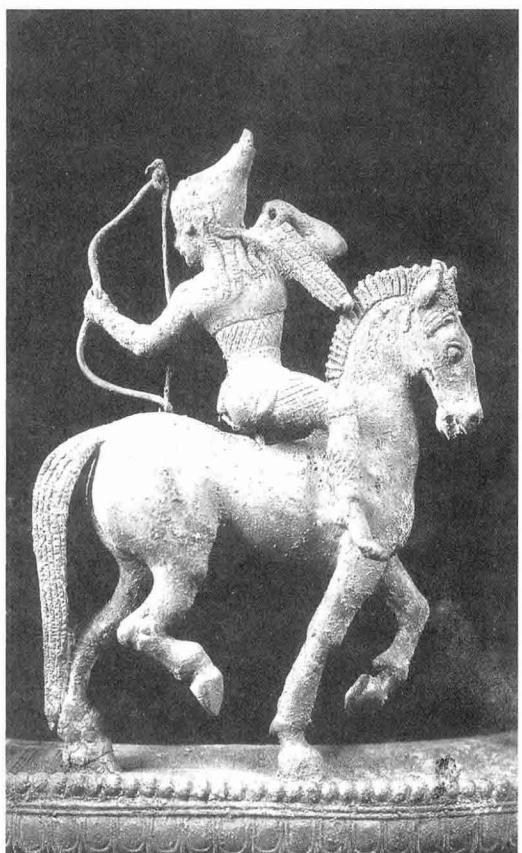
기마 궁수는 중앙 아시아의 유목민들에 의하여

전장에 소개되어 운용되고 있었다. 알렉산더 대왕은 스키타이의 핵심 부족들과 조우하여 소고디아나와 Jaxartes에서 격퇴하였다. 스키타이 부족의 후예인 Parthian들은 이 기간 중 남서부 아시아 지역에서 기마 궁수의 눈부신 지배를 이루하게 하였다.

기마 궁수 부대는 몽고 지역과 Turkistan 지역을 지배했던 강력한 몽고족과 인도-유럽인 : 흥노족 및 월씨족 유목 민족 전사들의 유일한 무장 형태였다.

미래의 군사적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한 사건이 Carrhae 전투에서 일어났는데, 이 전투에서 파르티아의 지도자 Surenas 휘하의 기마 궁수부대는 Crassus가 지휘한 로마의 보병 레지온

아시아 유목민 기마 궁수



기획연재

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그와 같은 적들과의 전투에서 약간의 문제만을 야기하면서, 잘 훈련된 보병과 기병부대를 통합된 팀으로 운용하여 기마 궁수 부대들과 대적할 수 있었던 알렉산더 대왕과 비교될 만한 재능을 가졌던 군사적 지도자들은 수세기 동안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레 전투 이후 십여 년간 파르티아인들은 유프라테스 강 서부 지역에 대한 그들의 습격과 정복 활동에서 거의 성공하지 못했다. 파르티아인들은 로마인들이 그러했던 것보다 로마의 군사적 능력에 대하여 역으로 더 무서워하고 존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레 전투는 한 가지 군사적 경향을 지적하였다. 몇 세기 후 기마 궁수부대는 로마와 비잔틴의 동부 국경 수비대에서 레지온 부대원을 대체하게 되었다.

인도는 군사적 발달 면에 있어서 한 가지의 예외를 제외하고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 비하여 뒤쳐져 있었다. 기원전 1세기 초반에 인도의 槍騎兵은 분명히 子를 사용하였다.

燈

■ 공성전

케사르는 알렉산더 대왕 다음으로 고대 공성 작전의 탁월한 실행자였다. 논리적, 조직적인 사고를 하였던 로마인들처럼 케사르는 공성 작전에 있어서 체계적인 순서를 확립하였다.

지역적인 환경 요인과 포위군의 반응에 따라 공성전에서 실시된 作戰的 및 工學的 행동들에 관한 일련의 기술들이 자연적으로 변화되었지만, 이 공성 작전 체계의 전형적인 실행에 관한 개략적인 기술은 고대 공성 작전에 대한 분명한 모습을 보여 준다.¹⁾

① 목재, 석재, 동물, 식량 및 가축 사료 등을 찾기 위한 주변 지역 및 기지 주변에 대한 수색 정찰 활동

② 방호 기지의 건설

③ 기지 건설과 공성 무기 제작에 필요한 물자의 수집

④ 휴대용 방패(가리개) 및 이동 가능한 전망대의 제작(전망대는 그 지붕이 화재 및 날아오는 무기에 견딜 수 있도록 축축한 표면으로 덧입혀졌고 서로 연결되어 놓여짐으로써 그 안으로 병사들과 작업 인부들이 최대한 전진하여 작업을 하고 진지를 구축할 수 있었던 지붕 덥힌 오두막과 같았다)

⑤ 기지 주변에 대한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堡壘 건설 및 방벽선과의 연결(이 작업은 통상적으로 ③, ④ 작업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작업의 실시, 그리고 가끔 포위한 아군을 공격해 오는 지원군에 대비한 방벽도 만들어졌는데, 케사르는 언제나 변함 없이 이중 방벽을 축성하였다.

⑥ 휴대용 방패, 오두막, 구축된 참호진지 등을 이용하여 적의 성벽을 향한 보호된 통로를 준비함. 이렇게 하여 공성 무기들은 통로의 끝, 지하 통로에까지 다다르게 되고, 이동된 공성무기들은 포위된 부대 및 성내의 민간인에 대하여 공격을 시작함. 공방 양측에서 중무기 및 경무기들이 모두 사용됨.

⑦ 휴대용 방패로 전방을 향하여 정상부에서 방호를 받은 채로 성벽을 향하여 한 단계씩 계단식으로 된 언덕을 구축함.

⑧ 전망대를 세움(일반적으로 계단식 언덕 위에). 전망대는 매우 큰 통나무 위에 놓여져 포위된 성벽을 향하여 서서히 전방으로 굴려졌음. 이와 같은 전망대는 적의 불화살로부터 불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축한 표면으로 방호되었음.

이 전망대의 아래 부분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병부대들에 의하여 잘 보호되었음.

⑨ 성채가 垢字로 둘러싸인 경우에 해자는 일반적으로 흙더미로 메워졌고 한 지점이 돌파구로 선정됨. 돌파구는 2가지 방법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방

호된 전망대 아래에서 破城槌를 사용하거나 성벽 아래로 지하 통로를 구축하는 것이었는데, 돌파구가 형성되면 성은 무너졌다.

성의 한 부분이 무너진 것을 연락 받은 방어군이 안쪽에 새로운 성벽을 구축하면, 돌파구 형성 작전은 여러 번 반복되었다. 방어군 역시 역으로 지하통로를 형성하여 공격군의 지하 통로 개척 작업을 방해하였다.

⑩ 최후의 공격. 방어벽 내에 형성된 돌파구를 통하여 최후의 공격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다. 어떤 경우는 돌파구 형성 없이도 시도되었는데, 공격군은 이동식 타워로부터 사다리를 걸쳐서 올라가거나, telenon을 이용하여 방어군의 성벽 타워 위로 밀고 들어갔다.

어떤 경우는 지하 통로를 이용하여 방어군 지역 안으로 비밀리에 전진 병사를 보내어 성문을 열거나 적을 배후에서 공격한 경우도 있었다. 공격 단계에서 로마군이 이룩한 전형적인 발명 중의 하나는 머리 위로 방패를 서로 연결하여 올라가는 testudo의 보호 하에 성벽으로 로마군의 대대 병력을 전진 시킨 것이었다.

■ 해 전

해전의 양상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로마 해군에는 강에서 사용한 소함정인 바닥이 평평했던 전선인 pontones를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전함이 있었지만, 트리메네와 퀸퀴레메는 여전히 중요한 전함이었다.

전투시 주요 목표는 여전히 적선을 정지시키거나 충돌을 가하여 가라앉히거나, 적선의 노를 파괴하거나 전선을 인접시켜 사로잡거나 적선에 불을 지르는 것 등이었다. 야간에 가능한 지점에서 정박하는 등의 순항 활동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Octavian 휘하의 해군 장군 Agrippa가 개발한 harpax 또는 harpago였다. 이것

은 끝 부분에 고리가 달린 막대기였는데, 포차에 의해 발사되어 적선의 옆부분에 박히면 고리에 의해 적선에 고정되는 것이었다.

하르파고의 끝에는 로프가 달려 있어 렌치가 작동하면 두 배가 닿아 이동이 가능하였다. 포경 작살의 선구가 된 이 무기는 Naulochos 해전에서 아그립바에 의해 사용되어 좋은 효과를 보았고, 후에 악티움 해전에서도 사용되었다.

마케도니아 – 로마 전쟁

■ 기원전 197년. Cynoscephalae 전투

양군은 안개 속 언덕 가운데서 예상치 못한 상태로 조우하였다. 첫 교전의 승리에 고무된 필립 왕은 팔랑스에 불리한 지형에서 큰 교전을 시도하였다. 그의 우익은 로마군의 좌익 후방으로 돌아 들어갔으나, 좌익은 고르지 못한 지형 위에서 행진 대형으로 전개하였다.

마케도니아의 좌익은 플라미니우스가 지휘한 로마군의 우익에 의해 공격을 받아 혼란에 빠졌다. 전진하던 로마군의 우익 중 일부가 분명히 플라미니우스의 명령에 의하지 않고 이동하여 마케도니아군의 우익을 쳐 전장에서 혼란한 가운데 이탈하게 하였다.

마케도니아 군은 13.000명의 손실을 입었으나, 로마군의 손실은 수백 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 전투는 유연성을 지닌 로마의 레지온 부대와 마케도니아의 팔랑스 부대가 교전한 첫번째의 경우였다.

■ 기원전 190년 12월. Magnesia 전투

로마군이 선제 행동을 취하여, 시리아군을 공격하기 위해 헤르무스 강을 도하하여 강력한 코끼리 부대의 뒤에서 기다렸다. 페르가뭄 기병부대를 인솔한 유메네스는 로마군의 우익에 위치하였다. 로마군과 동맹군의 기병은 레지온 및 동맹군 보병부대의 좌

기획연재

의에 위치하였다.

안티오큐스는 자신의 기병 부대를 두 편으로 갈라 팔랑스의 양익에 배치하고 자신은 우익을 지휘하였다. 최초에 우익의 기병부대들이 신속한 승리를 거두었다. 안티오큐스는 로마군의 기마병들을 전장에서 쫓아내고 강을 건너 로마군의 본부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는데, 그는 그곳에서 로마군 경호부대에 의해 격퇴 당했다.

그러나 유메네스는 시리아 좌익 기병부대에 대한 추격을 중지하고 시리아 팔랑스의 노출된 측익을 타격하기 위하여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와 동시에 로마의 레지온이 안티오큐스의 코끼리 부대를 격퇴하였는데, 미쳐 날뛰는 수많은 코끼리들을 안티오큐스 팔랑스 대형 안으로 몰아 부쳤다. 여전히 혼란한 가운데 유메네스의 기병부대가 시리아 보병의 좌익을 강타하였다. 동시에 로마군의 레지온이 전방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시리아군은 파괴되어 도주하였다. 기원전 189년 로마군은 다시 한번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전략적, 정치적 지도하에 소아시아 서부 지역 전체에 대한 통제를 확보하기 위한 승리를 추구해갔다.

■ 기원전 167년 6월 22일. Pydna 전투²⁾

전투는 양측이 강의 양안에서 각각 기병부대의 말에 물을 먹이고 있었던 오후에 시작되었다. 먼저 행동을 취한 페르세우스는 팔랑스 대형을 형성하고 강을 건너 공격하였다. 전투대형을 형성하고자 한 에이밀리우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케도니아군의 팔랑스는 강에서 가까운 평평한 지형으로 저항을 받지 않고 밀려들어왔다.

그러나 이 행동은 더 남쪽의 굴곡 지형에 이르자 대형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다. 에이밀리우스는 마케도니아 군 팔랑스 내에서 형성된 간격들을 이용하여 역습을 기했다.

로마군이 침투를 시작하자 마케도니아 군의 팔랑

스는 분리되었다. 20,000명의 마케도니아 군이 전사하였고 11,000명은 포로가 되었으며 페르세우스를 포함한 일부 병력만이 도주하였다. 로마군의 손실은 1,000명을 넘지 않았다. 페르세우스는 항복한 후 포로가 되어 이탈리아에서 사망하였다.

로마의 군사제도, 기원전 50년

제2차 포에니 전쟁이 끝난 후 150년 동안 진행된 로마의 변화와 무질서 현상은 군대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병사 개개인의 무능력과 로마인의 시민으로서 및 군사적인 의무 수행이라는 美德의 퇴화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군사 제도는 군의 탁월성을 가져다 준 기본적인 원칙의 바탕 위에 아직 남아 있었다. 그것은 규칙, 군기, 훈련, 융통성 및 공세 행동의 효율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 등의 요소이다.

굳센 이탈리아 농민의 개인함의 쇠퇴 및 그 규모의 감소 현상과 제국의 지속적인 팽창사업을 위해 해를 넘겨 복무하는 현상 등의 증가는 로마 시민군의 1년 복무라는 개념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였다.

그리하여 로마는 실제로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상비군을 유지하고 있었다. 정부가 매년 새로운 군대를 보낼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은 바다 너머에 파견된 로마 변경 지방의 군인들에 특별히 해당되었다.

로마의 민간 행정 및 군사 행정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남아 있었고 이러한 사항은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적인 능력이라는 면에서 수많은 유리함을 가지지 위해 유지되었으나, 시민군의 쇠퇴 현상은 병사의 개인적인 능력의 수준과 군사 지휘술에 있어서는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레지온 부대의 병사로서의 복무와 신임 장교직의 복무 등 전쟁에서의 고된 역경을 회피한 직업적인 정치가들이, 군사적인 배경과 경험 및 성향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군사 지휘권을 맡도록 임명되는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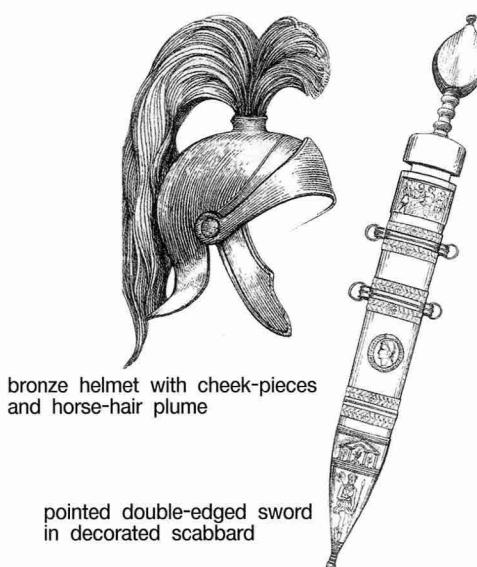
우가 많았다.

믿을 수 없는 사회 구성원으로 대부분 구성된 군대에서 보여진 일반적인 신뢰의 상실 현상은 규율과 훈련의 감소를 가져왔고 지휘관과 병사 사이에 점증하는 상호 신뢰의 상실 현상은 전투대형 형성 시 레지온 내에서 maniples 간의 간격을 축소하려는 경향을 놓았는데, 이와 같은 점은 전투대형 형성 시 이전의 그리스 팔랑스에서 보여졌던 상태로 접근하였다.

이와 같은 점은 역으로 로마군의 전투대형이 적의 그것에 비하여 가졌던 전통적인 우위성을 축소시키기 위해 하였고 로마군으로 하여금 수많은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였다.

■ 마리우스의 개혁

아루시오 전투에서의 재앙은 구식 시민군 체제의 종말을 고하는 吊鐘이었다. 새로운 군대를 편성하려는 노력들은 남자들을 16년간 兵籍에 넣어 국가로 하여금 군의 전문 직업화를 형성하려는 경향으로 로마 병사들의 무기



나타났다.

이것은 현실적인 로마인으로 하여금 구식의 군사 복무 과정에서 요구되던 감상적이고 이론적인 미덕을 무시한 채, 그 당시의 현실에 부응하는 군사 제도에 적응하려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집정관 재임시 마리우스는 새로운 체제의 조직화를 달성하여 초기 기독교 시기까지 효과적으로 유지하였다. 케사르도 역시 많은 개선과 응용을 하였지만, 그가 전투시 지휘한 군대는 본질적으로 그가 출생할 당시 마리우스가 창출한 모델 그대로였다.

마리우스의 정치적 단명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루한 군 개혁은 그로 하여금 로마 역사상 영웅의 위치에 있게 하기에 충분하다.

시민군 내에서의 身分 구분은 이제 사라졌고 하스타티, 프린시페스 및 트리아리의 구분이 여전히 사용되었지만 그것을 나누던 나이와 경험의 구분도 사라졌다.

이와 같은 제도하에서는 부대간 및 개인 병사들의 상호 교체를 용이하도록 하였고 더 많은 수준의 작전상 융통성과 기동상의 융통성을 가져와 병사의 보충과 배치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기원전 105년 마리우스의 동료 푸블리우스 루푸스에 의하여 완벽하고 개정된 訓練 教範이 출판되었다. 특별히 술라에 의하여 나중에 개정되었지만, 이 교범들은 사실상 케사르의 시대에 사용된 교범들이었다.

다른 요소에서와 같이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군대의 전문 직업화의 경향은 군내의 용맹성의 하락과 국가에 대한 시민 의무의 하락 현상을 상쇄할 수 있는 정도로 나타났다.

■ 마리우스의 레지온

팔랑스의 전투대형에 대한 경향을 수용하면서, 마리우스는 大隊를 가장 중요한 전술적

기획연재



케사르 시대의 로마 영토 확장

단위 조직으로 만들었다. 中隊는 단지 대대 내의 행정적인 요소로서 유지되었다. 400~500명의 병사로 구성된 10개 대대가 한 개의 레지온을 구성하였다.

대대는 50명을 전방에 세운 10~8개의列로서 전투에 임하였다. 白兵戰 시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기동과 다량의 투창 발사시 사용되는 密集 隊形 시에는 병사 개인간에는 3피트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였다.

이 대형에서는 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6피트 개인 간격을 유지하는 散開 隊形이 근접 전투시에 사용되었다. 交戰에 앞서 밀집 대형으로부터 신개 대형으로의 신속한 확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대대 사이에는 대대의 폭만큼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한 개의 레지온은 2 내지 3열을 형성하였는데. 마리우스는 첫째 대대의 세포단위적이고 체

스판과 같은 정렬을 통하여 레지온의 전통적인 融通性과 機動性을 유지할 수 있었고 둘째 전투시 각 개 병사 사이에는 전통적인 칼 길이 정도의 간격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셋째 근접전투를 수행할 때에 지속적으로 전방을 허용함으로써 자연적인 팔랑스의 경향에 이와 같은 융통성을 동시에 부여할 수 있었다.

이것은 구식 레지온이 본래 가지고 있던 유리함을 유지시키는 단순하고 우수하며 실질적인 발전이었다.

대대는 좌우로 밀착하여 두 배로 縱隊를 변형함으로써 4~5개 종대의 형태로 행군종대로부터 戰線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대형의 형성을 위한 행군 대형의 전개와 전방 및 여러 방향으로의 다양한 변화는 마치 현대의 밀집훈련에서의 전개와 유사하였다.

레지온의 일반적인 전투대형은 첫번째 열에 4개

의 대대. 두번째 및 세번째 열에 3개의 대대를 위치시키면서 3열로 형성되었는데. 전통적인 다섯점 모양 또는 체스 판에서 전방 열의 간격들을 번갈아 보충하는 개념이었다.

2열 대형에서는 각 열에 5개의 대대가 배치되었다.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레지온은 1개의 열로 전개되기도 하였고 4개 열 이상으로 전개되는 경우도 있었다.

대대의 前面은 약 120~150피트였고 인접 대대간에는 그만큼의 간격이 있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3열 대형을 채택하는 레지온은 1,000피트의 전투 정면을 할당받는 셈이었다. 각 열 간의 간격은 보통 150피트였는데. 보통 대형시 레지온의 전체 縱深은 약 350피트였다.

한 개의 레지온에 약 4,500명을 보유하면서 일반적으로 각 레지온이 3열 전투대형을 유지하는 경우. 8개의 레지온으로 구성된 1개 군의 전투 장면은 1.5 마일 정도였다. 전방 1야드에 13명을 위치시킨 마리우스 레지온은 1야드에 25명을 배치시킨 마케도니아 팔랑스와 비교하면 밀집 정도에 있어서 절반에 해당하였다.

레지온의 중요 방어 대형은 線과 方陣 및 元이었다. 후방에 참호와 축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 구사된 선 개념은 10개의 대대를 연결하는 하나의 선으로 이루어졌다. 방진의 개념은 일반적인 3열 전투대형에서. 3개의 대대는 전방에 두고 7개의 대대를 단순히 이동하는 것이었는데. 3개 대대는 후방 방호에. 2개 대대는 양익 방호의 임무를 부여받았다.

방진의 변형인 원 개념은 기병 부대에 대한 방어 시에 구사되었다. 그러나 측익이 다른 기병부대나 예비 輕部隊들에 의하여 보호되는 경우에 레지온은 통상의 전투대형으로 적의 기병 부대를 맞아 전투하였다. 창, 방패, 칼 등의 다양한 무기들의 결합이 가장 치열한 기병의 충격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레지온의 旗章은 날개를 펼치고 한 쪽 다리를 높이 든 독수리를 銀으로 복제한 것이었는데. 지휘봉의 맨 위쪽에 올려져 있었다. 레지온의 독수리 기장은 현대 군부대의 軍旗 이상으로 소중히 다루어졌다.

마리우스는 이전에 다양하게 사용된 여러 휘장들을 레지온 기장의 체계로 분명하게 조직화하였다. 각각의 대대는 고유한 기장을 소유하였는데. 이것은 6인치의 직경을 가진 나무나 금속으로 만들어졌으며. 지휘봉이나 지휘창에 부착되었다. 각각의 중대에도 현대군의 중대기와 같이 집합 지점을 명시하기 위한 기장이 역시 있었다.

이와 같은 기장들은 사람의 주먹만한 크기로 나무나 동으로 제작되어 지휘창의 상단부에 붙여져 있었는데. 그 아래에는 다른 식별 상징물들이 부착되어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註

- 1) 수정이 있었지만. 본문의 서술은 T. A. Dodge, Julius Caesar, Houghton Mifflin, 1892, pp.387~399를 참고하였음.
- 2) 전투 전날 밤의 月蝕 현상으로. 이 날은 로마군에게 행운을 줄 것이라고 여겨졌고. 마케도니아 군에게는 당혹함을 주었다.